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멜레피오스 안티오키아의 대주교

심판 주일(금육 주일)

성 테오도라 왕비, 블라시오스 주교순교자

제3조 / 조과복음 3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3조 부활 찬양송 / 82, A 213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당 찬양송
- 심판 주일 시기송 / 220, B 271
- 사도경 : 고린토 전 8,8-9,2 / 봉독서 432
- 복음경 : 마태오 25,31-46 / 136, B 90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멜레피오스 안티오키아의 대주교

우리 교회는 2월 12일을 안티오키아 대주교 성 멜레피오스(AD 310~381)의 축일로 기념합니다.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스는 성 멜레피오스 대주교의 장례식 추도문에서 “오, 그리스도의 교회여, 이 얼마나 큰 상실입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공의회가 열리고 있던 시기, 성 멜레피오스 대주교의 안식은 그 당시 교회로서는 커다란 상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단에 대항하여 올바른 가르침과 거룩한 삶으로 바

른 신앙을 수호하고 증언했던 거룩한 순교자들과,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교회의 교부들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교회의 교부들은 단순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 체험을 살아가신 분들입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멜레피오스 성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성인은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모든 덕의 가르침을 영혼에 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준비하며 사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일수록 지금의 내 삶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미래에 실제로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기준’이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누구를 막론하고 삶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서는 곳곳에서 우리 삶의 마지막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히브리 9,27)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누구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올 것이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산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껏 어딘지도 모르고 달려만 왔던 나의 인생길도 언젠가는 끝이 날 때가 올 것입니다.

또한, 누구를 막론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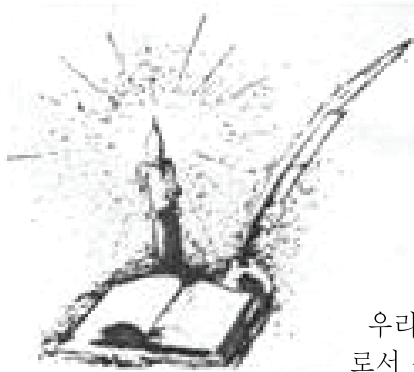
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최후의 심판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의인들과 영원히 쫓겨날 자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단 한 번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심판의 기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실천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오 25,40) 사랑의 행위가 곧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회개의 사순절을 앞두고 최후의 심판에 관한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묵상하게 됩니다. 나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면 오늘 복음을 기억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나눔을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계신 주님을 만나 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친구와 영적인 발전

트리폰 수도원장

우리는 나쁜 습관 때문에 텃에 빠지기가 쉽다. 그리스도인으로
로서 성장한다는 것이 때때로 실패하기도 한다. 우리의 영적
발전은 다람쥐 쳇바퀴 같아진다. 앞으로 나아가는 듯 보이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똑같고 그대로이다.

만일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친구 관계를 갖고 있다면,
아마도 이제는 그런 관계를 뒤로 하고 떠나야 할 때이다. 지난
1960년대에 나는 한 무리의 친구들과 함께 캘리포니아의 버클리에
있는 커피집에 자주 드나들곤 했다. 우린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나누고, 계속 이야기하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이제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우리 모두는 크게 놀랐
다. 그는 그렇게 지내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
고 자기는 의대에 가서 최고의 성적으로 학위를 마치고 싶다고 말
하였다. 우리는 모두 나서서 커피집 모임을 접지 않더라도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뒤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결정이 내 머릿속에서 오래도록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마
음 깊은 곳에서 그가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
는 당시에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점점 더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여섯 달이 못 되어 나도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오래곤 주
로 떠났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어떤 친구와 어울리는가 하는 것은 중요
하다. 만일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친구로 두고 있다면,
당신의 영적 여행에서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귀중한 가치들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
과 시간을 보냄으로써 그리스도와 더 힘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만일 그저 세속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이들과 시간을 보내다
면, 당신의 삶을 똑같은 식으로 보내다 끝맺고 말 것이다. 하느님
이 우리에게 나눠 주신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 참회의 만과

대사순절 전 주일인 다음 주일엔 성찬예배 후 참회의 만과가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사순절을 시작하여 영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시간은 각 성당에 문의해 주십시오.

■ 이번 주간은 육류를 금합니다

이번 주간은 사순절 들어가기 전 주간으로 육류는 금하고, 생선과 달걀 및 유제품은 허용됩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설날맞이 행사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성당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어르신들께 세배를 올리고, 다 함께 윷놀이 등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합니다. 2월 25일 주일 성찬예배가 끝나고 설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신데즈모스(영어권 신자 포함), 장년회, 부인회, 슬라브어 사용 신자 단체들은 윷놀이 팀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간 예식

- 2월 16일(금) ▷ 설날,
성 뱀필로스 순교자, 성 니콜라이 카잔
스키 일본의 대주교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및 성찬예배, 추도식
- 2월 17일(토) ▷ 한국의 첫 번째 성찬예배 기념일,
성 테오도로스 대순교자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주님의 최후의 심판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